

김용익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중,고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1975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에콜드서울전, 서울현대미술제,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다양한 전시활동을 하며 인공갤러리, 웅갤러리, 금호미술관 등에서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그는 이른바 70년대 모더니즘 작가로 출발하였으나 그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작품 제목대로 “가까이..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특히 근래의 작업의 경우) 모더니즘에 “기생”하여 모더니즘을 갉아내고있는 미묘 섬세한 “간극의 논리”를 발견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모더니즘과 탈 모더니즘의 경계에 아련히 존재하고있다.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 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금호미술관, 동경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으며 현재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다.